



## 2020년 평화도서관의 가을... 그리고 겨울



숲길을 들어섭니다.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 구름, 또 다른 나무들이 짙은 외로움 색으로 다소곳이 있습니다. 새싹이 돋고 초록으로, 그리고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했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 추위를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일 년 동안 열 번 만나야 할 사람들을 세 번 만나고... 세, 네 번의 여행이 소박하게 동네 뒷산으로 바뀌고 나의 발걸음이 혹 남에게 해를 끼칠까 조마조마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쌓이고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웃을 살피며...

올 한해 마음고생, 몸고생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해에는 즐거움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도서관을 찾아온 사람들

## 선유중학교 책보따리 & 이야기보따리로 평화 만나기

9월 25일, 10월 16일, 10월 18일 선유중학교에서 각각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기존에 있던 책보따리를 가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따리, 환경보따리, 관계보따리, 광주5.18보따리 등을 체험했는데 모둠별로 모여 진행한 후, 보따리 속 내용을 각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체험 후 느낌 이야기

- 인권이나 평화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 서로의 노력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
- “관계,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지?”  
“그건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 도토리나 갈참나무의 나뭇잎들이 서로를 살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삶속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해를 끼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오랫동안 진지하게 토론해서 좋았고, 토론을 하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알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인권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온전히 보살피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다.



## 9월 27일 의정부 참학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책보따리



### (선유중학교 체험 후 느낌 이야기 계속)

- 광주 5.18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관계’ 활동에 이어 ‘인권’ 활동도 너무나 뜻깊었어요. 몰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겠습니다.
- 오늘 ‘운동화 비행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5.18 민주화항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되는 기회를 가졌고, 인권이란 무엇 인지를 알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하여 다른 보따리도 하며 책도 읽고 싶은 바람이다.
- 이번 기회를 통해 인권과 평화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책만 읽을 뿐 아니라 게임을 통해 책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와보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다.
- 운동화 비행기 책을 읽으며 슬피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을 느꼈다.
- 2개의 보따리를 체험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짙고 굵은 책들도 읽어보고, 평화에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고 얘기도 해보고 비슷한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다. 역사적 사건도 알게 되어 좋아요.
- 인권 보따리에 있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토론하는 시간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친구들과 꼭 올게요.  
아, 그리고 제노사이드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좋았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또 오구 싫어요.
- 어색하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화목하게
- 즐거움, 교훈, 지식, 위치, 흥미, 재미, 웃음, 문학적 소양을 얻음
- 책을 읽고 나서 토론, 토의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책을 내가 읽어서 억울했다. 하지만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이 길지는 않았지만 교훈을 얻는 것 같아 좋았다. 이런 활동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꼭 추천해주고 싶다.
- 제노사이드 역사관에서 세계각지에서 있었던 제노사이드의 비극적 역사적 사실들을 접하면서 잊지않고 ‘기억’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간직하고 쉽게 자랄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관계와 인권의 책 보따리를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게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10월24일 포천 영복초등학교

### 보따리체험과 북큐레이션

조금은 진지하게 앉아 다양한 책보따리 체험을 하고, 평화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책을 읽고 큐레이션을 했습니다.



10월 25일  
의정부  
민주시민교육



의정부 지역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 체험을 왔습니다. 제노사이드 관련 강연을 짧게 듣고 영화 '투와이스 본' 영화를 보았습니다. 사라예보의 내전을 다룬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본 후 간단한 소감과 더불어 관련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 <영화 즐거리> 일생을 뒤흔든 첫 번째 여행, 여자로 태어나다.

1984년 논문 준비를 위해 사라예보로 여행을 떠난 젤마, 가이드 고히코의 소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우정을 쌓던 그녀는 연하의 사진작가 디에고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진다. 디에고의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젤마는 다른 여자의 몸을 빌리기로 하고 운명의 날을 맞이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내전이 일어난 사라예보를 도망치듯 떠난다. 일생을 뒤흔든 두 번의 여행... 엄마로 다시 태어나다. 어느날 걸려온 전화 한 통. 젤마는 한 때 뜨겁게 사랑했던 디에고의 사진전을 보기 위해 아들 피에트로와 함께 보스니아 사라예보로 여행을 떠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젤마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11월 21일 - 제노사이드 미션과 평화통일지수게임

### 여주 토닥토닥도서관 활동가 청년들이 왔어요.



11월 21일 여주에 있는 토닥토닥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찾아왔습니다. 제노사이드 관련 단어카드를 2인 1조로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료관에 둘러 자세히 들여다보며 사건을 이해하는 친구들, 서가에서 관련책을 찾아 꼼꼼히 읽어보는 친구들. 안내하는 집장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친구들. 그리고 조사해온 사실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팩트 있게 그림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오류부분이나 중요한 사실들은 다시 집장님이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평화통일지수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두 개의 모둠으로 구성되어 주어진 평화통일지수카드를 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중요도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 두모둠 다 접치는 내용 없이 3개의 카드를 선택한 것이 특이했습니다. 어떤 모듬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르고 또 다른 모듬은 대의적으로 실행가능한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또 카드내용 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며 활발한 통일을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제노사이드 (특정집단의 계보 또는 인종을 정당한 목적으로 구성원을 학살하는 행위)  
국제사회에 나치의 죄악 살인(홀로코트 포츠)을 과감히 위한 용역 사냥  
1945년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제노사이드 안행되고 그중 UN에서 제노사이드가 국제법상 범죄행위라는 걸 선언.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한류에서 반유대론과 관련된 건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노사이드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노사이드를 방치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노사이드사건, 5.18광주 민주화운동 때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재고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

1915~1923년까지 아르메니아에서 오스만제국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 학살의 흔적은 학살의 사면.  
1차 세계대전 시작  
↓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령에 가입  
↓  
이르라카 혁명 러시아까지 (자취희망)  
아르메니아 개척권이 무효임은 슬퍼  
↓  
오스만 제국내에 아르메니아인 배척하는 목적이 커짐.  
↓  
1915년 오스만 제국 175만명의 강제적 학살(아르카, 바자, 아르카, 아르카에서 학살, 소자, 연대를 포함한 6만명이 굶어 죽거나 오스만 정부에 의해 학살)  
↓  
18~50세의 남자는 강제노동 투입  
↓  
라캄 노동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  
↓  
결국 마지막엔 집단 학살  
↓  
2차 세계대전의 첫 제노사이드  
핵추진: 두둑의 노래, 메고메겐은,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도서관을 찾던 아이들이 발걸음이 뜸해지고, 평화도서관에서 학교로 직접 출강을 부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오면 더욱더 좋겠지만 아쉬움을 접고, 학교로 찾아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월 9일, 10일 장파초등학교 학년별 평화교육 하고 왔어요.

도서관에서 10분만 가면 있는 작은 학교인 장파초등학교에 11월 9일과 10일 다녀왔습니다. 유치·1학년은 평화책 팝업북을 만들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2·3학년은 다양한 친구 관련한 책을 마련해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4학년은 편견 관련 책을 갖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5·6학년은 제주 4.3을 문학작품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가가 왜 나무도장을 출간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작가의 그림 한 점 한 점을 펼쳐놓고 각자에게 와닿는 제주 4.3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11월 16일, 17일, 18일 자유초 평화책 팝업 수업

3년째 계속 진행해온 자유초 3학년 평화책 팝업 수업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었는데 다행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본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11월 27일 도마산초등학교 책보따리 강연 평화도서관 5명 출동



아마도 올해 마지막 체험이 되지 않을까요? 도마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보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학년은 생태보따리인 관계 보따리, 3·4학년은 환경보따리, 5학년 6학년은 각각 통일보따리를 진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때문 교실에 칸막이를 놓고 하는 활동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 잘 진행하고 왔습니다.

### 2019년 VS 2020년

## 평화도서관 방문자수, 어떻게 다를까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앞이 캄캄한 요즘. 많은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죠. 평화도서관도 8~11월 기준 작년 대비 평균 60% 이상 방문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 평화를 이야기하고 여러 개인, 단체들과 제노사이드 교육도 진행하며 평화를 널리 알리고 싶건만, 원래도 쉽지 않았던 길이 올해는 한걸음, 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원분들, 조심스럽게 발걸음 해 주시는 분들, 멀리서나마 잊지 않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내며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 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열린 끝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 ※ 2019년, 2020년 방문자 비교 통계

월별	2019 개인	2020 개인	증감율
8월	198	56	-72%
9월	118	36	-69%
10월	151	89	-41%
11월	52	85	63%

월별	2019 단체	2020 단체	증감율
8월	113		-100%
9월	59	15	-75%
10월	33	5	-85%
11월	39	1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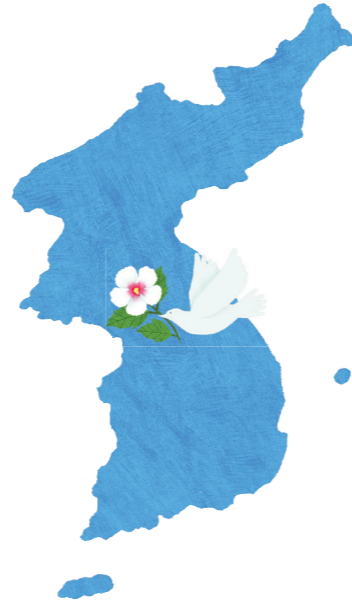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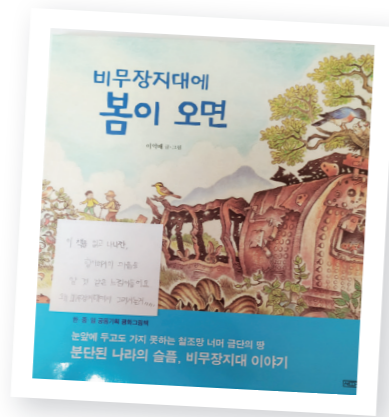
월별	2019 프로그램	2020 프로그램	증감율
8월	36	49	36%
9월	231	76	-67%
10월	185	140	-24%
11월	325	16	-95%

월별	2019 월 총계	2020 월 총계	증감율
8월	347	105	-70%
9월	408	127	-69%
10월	369	234	-37%
11월	416	113	-73%

2019년 평화통일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강사들이 2020년 드디어 학교로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부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인 등교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취소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시 주춤해졌던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파평중학교 2학년 2차시 수업 / 탄현초등학교 5,6학년 4차시 수업 / 선유중학교 1학년 2차시 수업  
한가람중학교 1학년 9개반 4차시 수업 / 청암초등학교 5학년 5개반 2차시 수업  
자유초등학교 5학년 5개반 3차시 수업

### 평화를 함께 나누는 평화통일릴레이 수업



양손 가득 책보따리와 준비물을 들고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평화수업은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평화로운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첫 시작부터 조용히 맞아준 맑은 눈을 가진 순수한 학생들. 드디어 평화통일릴레이 수업 시작~

#### 1차시 수업은 평화감수성키우기

평화책을 읽고 내가 언제 평화가 깨지는지 평화가 깨졌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보고 그 상황을 써보았다. 평화가 깨지는 순간엔 관계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길 때였다고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자신의 평화는 절대 안깨진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하는지 평화가 깨질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듣고 싶은 말로는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넌 할 수 있어, 맘껏 쉬어, 하고 싶은 거 해' 등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 2차시는 평화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 다양한 평화그림책 읽고 나누기

다름을 인정, 배려와 존중, 제도적 평등, 비폭력·비무장, 생명의 존엄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으며 평화단계도 나누어보고 책

에서 주는 메시지도 적어보았다. 편견에 대해서는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며, 해결책은 직접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보라고 했다. 그림책을 읽으며 흑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흑인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책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것에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 3차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림책을 통해 살펴보고 생각 나누기

'백년아이' 책으로 1919년부터 2019년까지 백년의 역사동안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100년과 통일된 한국의 미래주역으로 나의 100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통일한국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 4차시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 나누기

분단을 통해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에 관계된 그림책과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했으며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통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찬성은 경제적 이익과 한민족이어서 반대는 경제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차이를, 중립인 친구들로 다



편견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색깔도 없이 사투이 편견이도 없이 있어  
같은 색깔 그 사람을 묶고 차별하던 그런  
뜻도 없이도 그 차이를 칭찬해 나와 같은 사람이  
생각 같.

통일  
: 나는 통일을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산가족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하기엔 어렵겠지만 경로를 조금  
튼다거나 서로의 문화를 조금씩 잘 조합해  
통일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생길 수 있는 직업  
: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람

교과수업보다 재미있고  
구차시 동안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나라가 되버렸다. 물론 북한에 잘못도 없고  
중국과 연결되어있어 이국인 같이 살지만 그만큼 잘못도 많고  
큰이 너무 많이 있고 아직 통일을 하지만 그 큰은 그속사나 이런 쿠데타사건들은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겠다.  
통일을 하면 좋은사건은 인간사이다.  
가족을 만나러 볼수도 하지만 . 통일을 하면 경제가 엄청 좋아진다.  
(국산 쌀 개발, 수출에 필요한 돈, 등)

북한 통일 관련 나의 생각 (주제)  
① 이산가족 만남 (원래 큰 민중이었음)  
② 북한의 거처거주 + 남한의 기술력 = 김정은 같은 것을  
③ 서로 수정해야 할 것도 많음 (북한의 권위주의, 남한의  
서면)  
④ 통일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면 좋겠다.  
⑤ 통일을 하거나 인화더라도 한반도 교류하고  
이산가족이 많이 만나면 좋겠다.  
북한과 남한의 다름을 인정하면 좋겠다.  
말소리 번역 앱을 만들거나 배리어프리를 만든다



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통일준비위원회의원이 되어 통일준비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통일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고 다양한 토론을 해보고 싶어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둠활동을 통한 움직임이 없는 활동이 어렵긴 했지만 책을 읽어줄 때 학생들이 집중하면서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고, 다양한 그림책을 통해 새로운 수업 활동을 한 것을 기존의 수업과 다르게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앞으로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그림책을 읽는 활동과 토론을 해보고 싶다.

이진영 평화통일활동가



## 나 스스로의 평화가 먼저

평화·통일교육은 아마도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교육일 것이다. 그동안 평화·통일교육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깊이 있는 접근은 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의 문제, 통일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군인 남편을 두고 있음에도 나오는 거리가 있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문제라고만 여겨왔었지만, 평화통일 활동가로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직접적으로 통일을 다루는 단원만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나의 편견들이 깨어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모두가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여 평화를 이야기하며, 피하고 싶은 아픈 전쟁의 이야기까지도 그림책을 통하여 학교 친구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며, 평화통일 교육이라면 우정, 배려, 갈등, 일상 등, 나 스스로의 평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비슷한 인성교육이나 도덕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벤트성의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릴 적 받았던 교육에 비교하여 본다면 얼마든지 열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현장은 분명하다.

강당 앞에서 서 있는 나에게도 아이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평화통일활동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었냐는 이야기와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평화·통일교육 들을 받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던 현장의 모습과 온기들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의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였고, 학교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많은 모습 활동들을 준비하였다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평화롭지 못한 일상들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개개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 들도 남아 있다.

남북으로 분단 이전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공통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하여왔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 사회,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 될 것인지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평화공존을 위하여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 친구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스스로의 평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느낀 평화·통일릴레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코로나19를 물리친 후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바래본다.

곽지현 평화통일활동가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관장의 서가	미안하지만, 사실은 (당황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감추지 않는) 부모의 첫 성교육	Jule 노하연	서점안착 경향BP(경향비피)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한들댁이 조근조근 가사체로 들려주는) 내방가사 이야기	이미경 그림과 글 권숙희 글썬음 / 엄혜진 삽화	남해의봄날 달구북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대기업 때려치우고 동네 북카페 차렸습니다	김중석 지음 숯단 지음	웃는돌고래 잇콘	
	나와 개의 시간	카예블레그바드 글그림 / 위서현 옮김	콤마	
	더불어 사는 삶	가난한 사람은 왜 생길까요? : 처음 이야기해 보는 세계의 빈곤 문제	질리안 로버츠, 제이미 캐셋 글 제인 하인릭스 그림 / 서남희 옮김	현암주니어
	민주주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일본 제국 패망사 : 태평양전쟁 1936~1945	안느 가엘 발프 글 / 오로르 프티 그림 이주영 옮김 존 톨런드 지음 / 박병화, 이두영 옮김	책과콩나무 글항아리
베트남	안녕, 베트남	심진규 지음 / 고정순 그림	양철북출판사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연구용) = Armenian genocide	니콜라이 호바니시안 지음 / 이현숙 옮김	한국학술정보	
	메스 예게른 (연구용) :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1915~1916	파울로 코시 지음 / 이현경 옮김	미메시스	
	두둑의 노래(교재용13)	장경선 지음 / 박준우 그림	평화를품은책	
아카이브	리비교 가는 길 : 이용남 사진집	이용남 사진 / 장경선 글	구름바다	
	슈퍼 토끼 : 유설화 그림책	유설화 글·그림	책읽는곰	
오키나와	보물섬 (연구용) : 영웅들의 섬 : 신도 준조 장편소설	신도준조 지음 / 이규원 옮김	양철북출판사	
	오키나와의 눈물 (연구용) :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 '메도루마 숲'이 전하는 오키나와 '전후'제로년	메도루마 숲 지음 / 안행순 옮김	논형	
외국그림책	낙서가 지우개를 만났을 때	리오나, 마르쿠스 글·그림 / 황연재 옮김	책빛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다비드 칼리 글 / 모니카 바렌고 그림 유영미 옮김	책빛	
외국평화 / 일본	3びきのくま (3마리의 곰)	L·N·トルストイ 文 / パスネツォフ 絵 / 小笠原 豊樹 訳	福音館書店	
	なぜ戦争はよくないか (왜 전쟁은 안 좋은가)	アリス ウォーカー 文	偕成社	
	うみがめぐり (바다거북 구리)	しゅんいち, かわさき 作品	仮説社	
	うさぎのいえ (토끼 집)	ロシア 民話	福音館書店	
	とうきび (옥수수)	詩: クオン・ジョンセン 絵: キム・ファンヨン 訳: おおたけ きよみ	童心社	
	もりのかくれんぼう (숲 속 숨바꼭질)	作: 末吉 暁子 / 絵: 林 明子	偕成社	
	くすのきだんちへおひっこし (녹나무 단지에 이사)	作: 武鹿 悦子 / 絵: 末崎 茂樹	ひかりのくに	
	へいわってどんなこと? (평화란 어떤걸까?)	作: 浜田 桂子	童心社	
	父さんたちが生きた日々 (아버지들이 살아온 날들)	作: 峯 龍(ツェンロン) 訳: 中 由美子	童心社	
	くつがいく (군화가 간다)	作: 和歌山 静子	童心社	
	おぼえているよおおきな木 (기억하고 있으라구 큰 나무)	作·絵: 佐野 洋子	講談社	
	おほしまかいて! (별님 그려줘)	作·絵: エリック·カール 訳: さのようこ	偕成社	
	てぶくろ (장갑)	作:(ウクライナ 民話) 絵: エウゲーニー·M·라초프 訳: 内田 莉沙子	福音館書店	
トビウオのぼうやはびょうきです (날치 아가는 아파요)	作: いぬい とみこ 絵: 津田 櫛冬	金の星社		
ぼくの島 (나의 섬)	作·絵: バーバラ·クーニー 訳: 掛川 恭子	ほるぷ出版		
まほうのえのぐ (마법의 그림물감)	作·絵: 林 明子	福音館書店		
いのち (생명/목숨)	著: 窪島 誠一郎 かせりよう	アリス館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외국평화 / 일본	さくら (사쿠라-벚꽃)	田畑精一 作	童心社	
	赤瓦の家 (빨간 기와집 일본원작)	川田 文子 著	筑摩書房	
	ひろしまのピカ(히로시마의 불꽃 일본원작) = 히로시마의 피카	丸木 俊 글·그림	小峰書店	
	非武装地帯に 春がくると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일본판)	イオクベ 作 ; おおたけきよみ 譯	童心社	
	へいわってすてきだね (평화는 멋지구나)	安里有生 詩 ; 長谷川義史 画	ブロンズ新社	
	ドームがたり (돔 이야기)	アーサー・ピナード 作 ; スズキコージ 画	玉川大学出版部	
	春姫という名前の赤ちゃん (춘희는 아기란다 일본판) = Chun-hee, she is a baby	ピョンキジャ 文 ; チョンスンガク 絵	童心社	
ウミガメと少年 (바다거북과 소년)	野坂昭如 作 ; 黒田征太郎 繪	講談社		
외국평화 / 중국	和平是什么 (평화란 어떤걸까 중국판)	(日)濱田桂子	译林出版社	
	非武装地帯的春天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중국판)	李亿培 文/图 ; 孙淇 译	译林出版社	
	花奶奶 (꽃할머니 중국판)	[韩] 权伦德 著 ; 孙淇 译	译林出版社	
	靴子的行进 (군화가 간다 중국판)	[日] 和歌山静子 文/图 ; 林静 译	译林出版社	
위안부	수요일의 눈물(사인본) = Wednesday tears	최은영 글 / 허구 그림	바우솔	
인권 / 난민	우리 결의 난민 (연구용) :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	문경란 지음	서울연구원	
	우리 결의 난민 :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	문경란 지음	서울연구원	
	난민 말고 친구(사인본)	최은영 글 / 신진호 그림	마주별	
인권 / 성소수자	무지개 성 상담소 :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동성애자 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음	양철북	
인권 / 인종다문화	마틴과 로자 : 평등을 위해 함께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자 파크스	라파엘 프리에 글 / 자우 그림 곽노경 옮김	내인생의 책	
인권 / 학교폭력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 특수전 : 더 썬 놀이 왔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경옥 외 씀	양철북	
인권	나는 간첩이 아니다(책자)	공감아이	공감아이	
	지역의 질감(책자)	변상철, 주현우 글 / 한톨, 히로카와 다케시 기록	지금여기에	
	제가 왜 참아야 하죠? :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참교육	박신영 지음	바들비	
	폭력과 존엄 사이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만나다	은유 지음	오월의봄	
	111 수상한책 2. 2	지금여기에 지음	지금여기에	
	인권을 먹다 : 국가폭력 이야기	변상철 지음	네잎클로버	
	내 삶은 내가 살게 네 삶은 내가 살아	옥영경 글	한울림	
	미치지도 죽지도 않았다 : 파란만장, 근대 여성의 삶을 바꾼 공간	김소연 지음	효형출판	
	군함도 2 (연구용) : 한수산 장편소설. 2	한수산 지음	창비	
	빅히그 : 멍멍이, 야옹이, 너 그리고 나의 상상 일상 단상	박형진 글·그림	더블:엔	
	스피릿베어의 기적	벤 마이켈슨 씀 / 이승숙 옮김	양철북	
	전쟁 쓰레기 (연구용) : 하진 장편소설	하진 지음 / 왕은철 옮김	시공사	
	전쟁 쓰레기 : 하진 장편소설	하진 지음 / 왕은철 옮김	시공사	
	111: 수상한 책 : 수상한책	기억발전소 [편]	기억발전소	
	군함도 1 (연구용) : 한수산 장편소설. 1	한수산 지음	창비	
	자연환경	논 벼 쌀 : 거래의 숨결 국토의 눈물	김현인	전라도닷컴
		거인에 맞선 소녀, 그레타	조위 터커 글 / 조이 페르시코 그림 김영선 옮김	토토북
나는 생명이예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글 / 마린 슈나이더 그림 / 장미경 옮김	마루빌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제주	꽃을 피워라(교구-보드게임)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지금여기에
	순이 삼촌 (연구용)	현기영 지음	창비
	해녀들의 섬 : 리사 시 장편소설	리사 시	북레시피
차별	파친코 2 (연구용) : 이민진 장편소설. 2	이민진 지음 /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파친코 1 : 이민진 장편소설. 1	이민진 지음 /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파친코 2 : 이민진 장편소설. 2	이민진 지음 /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파친코 1 (연구용) : 이민진 장편소설. 1	이민진 지음 /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 (연구용) : 1923년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	가토 나오키 지음 서울리더티 옮김	갈무리
	통일	금강산은 모두의 길이다 : 남과 북을 잇는 통일 오작교 분단시대 금강산기행	정인숙 지음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서양원, 윤상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백년아이		김지연 글·그림	다림
팔레스타인	생명의 릴레이 : 전쟁 한가운데서 평화를 꿈꾸는 한 팔레스타인 가족 이야기	가미타 미노루	양철북
평화	임계장 이야기 : 63세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노동 일지	조정진 지음	후마니타스
	세습 중산층 사회 :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조귀동 지음	생각의힘
	보이지 않는 국가들 : 누가 세계의 지도와 국경을 결정하는가	조슈야 키팅	예문아카이브
	마당을 나온 암탉 : 출간 20주년 기념판	황선미 지음 / 윤예지 그림	사계절
	할머니 독립만세 : 걸음마다 꽃이다	김명자 지음	소동
평화그림책	왕왕, 솔부엉이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김서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도서관친구들
	베이비 핑크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박지민	
	혼자 떠도는 돌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백다운	
	꽃이 날리는 하루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변준	
	앞마을(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송민규	
	동박새(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안소현	
	통통새(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오선우	
	나의 비행기 새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오승현	
	둘땡이(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이도원	
	눈물비(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이병준	
	햇빛이 놀재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이산희	
	파란 사람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정재원 그림, 정재원 어머니 이상은 글	
	이안이와 팔색조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최이안	
카리스마 노랑턱멧새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하윤		
마음이 통하는 날 (2019 '세계자연유산, 마을과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	황지연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불안(사인본)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그림	핑거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교재용01)	루이즈 암스트롱 글 / 서현 그림 / 서애경 옮김	평화를품은책
	할매들은 시방 : 전라도 장흥 할머니들의 두근두근 내 생애 첫 시와 그림	김기순, 김남주, 박연심, 백남순, 위금남, 정점남 그리고 짓다	정한책방
	고민 해결사 펄컨 선생님	강경수 글·그림	시공주니어
	나무 도장(교재용01)	권윤덕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나무 도장(교재용02)	권윤덕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나무 도장(교재용03)	권윤덕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씩스틴(교재용01) : M16	권윤덕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강냉이(교재용01)	권정생 시 / 김환영 그림	세계절
	강냉이(교재용02)	권정생 시 / 김환영 그림	세계절
	채식하는 호랑이 바라	김국희 글 / 이윤백 그림	낮은산
	이까짓 거!	박현주 지음	이야기꽃
	엄마에게(교재용01)	서진선 쓰고 그림	보림
	엄마에게(교재용02)	서진선 쓰고 그림	보림
	오늘은 5월 18일(교재용01)	서진선 지음	보림
	할아버지의 감나무(교재용01)	서진선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할아버지의 감나무(교재용02)	서진선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할아버지의 감나무(교재용03)	서진선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제무시(교재용01) = The GMC truck	임경섭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제무시(교재용02) = The GMC truck	임경섭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제무시(교재용03) = The GMC truck	임경섭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후리소리(교재용01)	정정아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타이어 월드(사인본)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그림	핑거
	미움 : 조원희 그림책	조원희 글·그림	만만한책방
	위대한 아파투라일리아	지은 글·그림	글로연
	기차(교재용01)	천미진 글 / 설동주 그림	키즈엠
	기차(교재용02)	천미진 글 / 설동주 그림	키즈엠
	나는 아직도 아픔니다(교재용01) : 어린 아재의 오월 이야기	최유정	평화를품은책
	운동화 비행기(교재용01)	홍성담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운동화 비행기(교재용02)	홍성담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운동화 비행기(교재용03)	홍성담 글·그림	평화를품은책
	평화 책(교재용01)	토드 파 지음 / 엄혜숙 옮김	평화를품은책
	평화 책(교재용02)	토드 파 지음 / 엄혜숙 옮김	평화를품은책
	빨간 벽(교재용01)	브리타 테켄트럽 지음 / 김서정 옮김	봄봄
	빨간 벽(교재용02)	브리타 테켄트럽 지음 / 김서정 옮김	봄봄
	병사와 소녀(교재용01)	조르디 시에라 이 파브라 지음	문학과지성사
	병사와 소녀(교재용02)	마벨 피에를라 그림 / 김정하 옮김	
	아빠한테 물어보렴 : 신비한 어른 말 사전	다비드 칼리 글 / 노에미 볼라 그림 / 황연재 옮김	책빛
	만구 아저씨가 잃어버렸던 돈지갑(사인본)	권정생 글 / 정순희 그림	창비
	따뜻해 : 김환영 그림책	김환영 글·그림	낮은산
	물이 되는 꿈	루시드 폴 노래 / 이수지 그림	청어람아이



청구기호	제 목	저자	출판사
	바늘 아이	윤여림 글 / 모에진 그림	나는별
	토마토	이단영 글·그림	이야기꽃
	이파라파나무나무 : 이지은 그림책	이지은 글·그림	세계절
	두 발을 담고고(사인본)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그림	핑거
	꺼내줘 1987(교구-보드게임)	포푸리 제작, 라운드트라이앵글 디자인	포푸리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폴 쏫, 헬 드레이퍼 지음 / 차승일 역음	책갈피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 민족주의의 적인가, 개혁의 희망인가	마즈시마 지로 지음 / 이종국 옮김	연암서가
	춧불혁명 : 2016 겨울 그리고 2017 봄, 빛으로 쓴 역사	김예슬 지음 / 김재현 외 사진	느린걸음
	무섭고도x황당한 국가보안법	황동하	그림씨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까 : 십대라는 이름의 시민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함영기 외 지음	만들레
	날아라 태극기	강정님 글 / 양상용 그림	보물창고
	안중근 안솔로지 : 안중근의 모든 것	안중근의사승모회/기념관 지음 / 유영렬 역음	서울셀렉션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	최필숙 지음	지앤유
	1945, 철원 (연구용) : 이현 장편소설	이현 지음	창비
	밤의 눈 (연구용) : 조갑상 장편소설	조갑상 지음	산지니
	그 여름의 서울 (연구용) : 이현 장편소설	이현 지음	창비
	전쟁과 사회 (연구용) :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김동춘 지음	돌베개
	아이들의 왕 야누시 코르차크	베티 진 리프턴 글 / 홍한걸 옮김	양철북
	출무니 파자마를 입은 소년 (연구용)	존 보인 지음 / 정희성 옮김	비룡소
	나이트 (연구용) : 살아남은 자의 기록	엘리 위젤 지음 / 김하락 옮김	예담
	나무들도 옵니다	이렌 코양-장카 글 / 마우리치오 A.C. 라펠로 그림 / 엄명순 옮김	여유당
	이것이 인간인가 (연구용) :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프리모 레비 지음 / 이현경 옮김	돌베개
	나치는 왜 유대인을 학살했을까? (연구용) : 현대	송충기 지음	민음인

\* 이 자리를 빌어 평화도서를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평화를품은집' 명화가 들려주는 새책 이야기



#### | 인권/난민 난민 말고 친구

친구의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 중학생 친구들의 실제 사연으로 이 책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500여명의 예멘인들 중에 결국 2명만 난민으로 인정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난민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었던가요?

시리아에서 온 사라와 2명의 친구들과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난민을 이야기 할 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 | 한국그림책 이파라파나무나무

'이파라파나무나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마시멜롱 마을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덩치를 지닌 털송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순간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순간도, 우리가 '이건 오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재미있는 그림, 다양한 설정,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 | 관장의 서가 미안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라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던 그 솔직한 이야기를 귀여운 그림과 간결한 문장으로 육아의 기쁨과 힘들음을 동시에 표현한 책이다.

독립출판물사의 책이라 일반적으로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책이지만, 연령대별로 다른 읽는 재미를 또는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책이다.





## 밤고지 주민교육과정을 마치며



전국의 수많은 마을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조성하기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두포2리 역시 2020년부터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밤고지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어떤 마을보다 마을 주민 개개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별한 점이다.

마을이 함께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민보다 마을 공동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마을사업 자체가 공동체성이 강한 활동이므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만 강조되는 마을사업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밤고지는 시작부터 주민 하나 하나를 중심에 두고 마을사업을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마을사업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옥수수는 어디에서나 자라지만 옥수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마을사업에서 다양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밤고지는 마을사업을 준비하며 주민 각자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주민 누구나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각자의 프로그램이 마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원이 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길지 않은 교육과정이었지만, 주민들은 진지했고 적극적이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밤고지 평화마을의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게 한다.

두포리 주민 교육 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  
지민정 지역아카데미 농촌활성화센터 센터장

2020년  
책보따리 사업은  
파도협과  
함께 했습니다.



11월 23일 책보따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코로나 19를 무릅쓰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진행한 파주시 작은도서관의 책보따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거나 거리두기를 하며 3차시까지는 기존 평화도서관에서 완성되어있는 다양한 보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얼마나 재미있는 보따리어야 하는지 등등을 체험하고 또 3차시는 우리 도서관은 어떤 책으로 어떤 보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6차시 내내 기획하고, 토론하고, 또 기획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따리가 3개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구요, 3개가 만들어진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보따리를 들고 이웃해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같이 활동하며 피드백 받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때 각자가 풀어본 보따리에 대한 감상, 오류 등 다양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은 아마 하나의 보따리로 또 다른 다양한 보따리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보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으로!!!!

## 제주도에 책보따리 교육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11월 2일 ~ 3일 제주도시재생센터에서 김영수도서관 자원활동가 대상으로 책보따리 강연이 있었습니다. 3일 오전 오후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책보따리 속 책을 꼼꼼하게 읽는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20일 제주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 대상으로 책보따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갖고 싶다면



만들어서 판매하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 11월12일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여

이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안건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018년 2월에 개관한 장애인 특화도서관인 한울도서관 2층을 운영3동 행정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들은 공공도서관을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변형운영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 평화도서관 살림꾼 우리가 알려주는 평화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다!

평화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재능기부와 와 주시는 분도 계시고 봉사활동 시간을 위해 오는 학생들도 있지요. 사람마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도서관은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주 기본적인 서가 정리부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 중요해진 책 소독, 도서관 청결관리, 평화교육 자료 준비, 도서관 자료 정리 등이나 언어에 뛰어나다면 자료번역까지. 평화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공공도서관과는 분위기도 다르고 일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색다른 경험을 입혀보세요. 저희 도서관 위치 특성상 학생 혼자 오지 못하는 도서관이라 꼭 부모님의 환송(?)을 받으며 옵니다. 부모님은 뭐하시나요? 함께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독서삼매경에 빠지는 분도 계시고 운송자 역할만 하는 분, 다양하게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아이와 함께 봉사하시는 아빠가 훨씬 더 재미있어 하신 게 기억이 남네요. 자녀랑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도서관, 참 좋죠?

##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한달에 5회로 진행되는 책친구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기,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책친구 사업 덕에 작은 모임에, 활동가가 함께 들어가 진행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사업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올해의 공동주제가 '기후변화의 시대-작은도서관, 생명을 말하다'였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위기의 지구 환경에 대한 책을 함께 읽고, 활동하면서 환경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11월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DMZ주변 지역의 활동이야기 - 마을, 평화

DMZ를 둘러싼 다른 타지역, 김포, 강화, 연천, 파주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한 평화관련 다양한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도서관 활동도 소개되어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 '평화보드게임 그림책 여행' 꿈의학교 성황리에 끝났어요.

6월에 처음 입학하고, 8번의 모임 끝에 **성평등 / 환경 / 전쟁 / 통일** 보드게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처음의 모임이 연기되기도, 중간에 활동을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한번 모임을 할 때 하루 종일 아이들이 열심히 해 준 덕에 10월 31일 드디어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꿈의학교에 참여한 친구들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면 스스로 만든 보드게임을 대여해 준다는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준 꿈의 학교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 평화길찾기 모임

평화길찾기 6기 모임은 지난 11월 모임을 갖고 재미 한국계 작가 이민진의 장편소설 《파친코》1,2 읽고 소설의 문학적 깊이, 역사적 사실, 작품 속에 드러난 재일조선인의 직업과 삶, 일본의 민족 편견과 차별, 일본인들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 작가 의식 등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양진, 선자, 모자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재일조선인(자이니치) 가족 4대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소설이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일이지만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던 것 같다.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에서 살던 양진의 딸 선자는 남편 이삭을 따라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남편의 형 요셉 내외와 함께 살아간다. 주인공 선자의 가족 4대는 여타의 재일조선인처럼 일본인들과 일본국의 편견과 혐오, 증오, 차별법에 시달리며 빈곤과 범죄의 세계로 내몰린다.

아래 '작품 속으로 1'은 한 재일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의 혐오와 증오심에 못 이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일본인 학생의 낙서 글이고



'작품 속으로 2'는 흔히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개목걸이로 불리는 일본의 재일조선인 차별법에 해당되는 외국인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1979년, 일본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주인공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모자수가 지방 관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일본은 1952년 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은 열네 살 생일에 지방 관청으로 가서 거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일본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으면 3년마다 등록증을 갱신해야 했다.(2권 241쪽)

### 작품 속으로 1

... "죽어버려, 못생긴 조선인."  
"보조비 챙길 생각하지 마, 너희 조선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방귀 냄새 나는 가난한 인간들"  
"네가 자살하면 내년에는 우리 학교에서 더러운 조선인 한 명이 줄어들 거야."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조선인들은 문제아에 돼지들이야. 지옥으로 꺼져버려, 넌 왜 여기 있니?"  
"너한테서 마늘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나!"  
"할 수만 있다면 네 머리를 직접 베어버리고 싶지만 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2권 213쪽)

### 작품 속으로 2

...여자 직원은 솔로몬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잡아서 검은색 잉크가 담긴 통에 부드럽게 담갔다. 솔로몬은 색칠하는 아이처럼 하얀색 카드에 손가락을 눌렀다. 모자수는 시선을 돌리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직원이 솔로몬에게 미소를 짓고 다음 방에서 등록증을 가져가라고 했다. "개목걸이가 지러 가지." 모자수가 말했다. "네?" 우리 같은 개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 말이야." 직원이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지었다. "지문과 등록증은 정부 기록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2권 249쪽)

회원소식은 회원이면 모두 소식지를 통해 원하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조윤근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초등학교때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후원회원 소식

조윤근 후원회원

안녕하세요.  
 금산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조윤근이에요.  
 평생 가까이에 있을 것만 같던 꿈꾸는교실(평화도서관의 옛이름)을 떠올리려면 이제 는 1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요. 아직은 '어렸을 적' 또는 '10년 전' 이라는 말을 하는 게 낯설고 신기하게만 느껴져요. 저에게 꿈교는 제가 말하는 '어렸을 적' 추억의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아마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꿈교를 다니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 활동들을 적어보면, 어린이 사서, 어린이 기자, 목공, 천연염색, 한지인형 만들기, 역사수업 등 소중하지 않았던 활동들이 없어요.  
 이 글들을 쓰면서 꿈교를 다닐 때 만들었던 작품들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얼마나 활발했고 개구쟁이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 가 담겨있었어요. (한지인형 사진첨부)  
 노는 걸 좋아했던 제가 어느 친구들과 어떤 루트로 돌아다니며 놀았는지 어렵듯이 기억나는 게 추억 들고 재밌네요.  
 저는 지금 금산에서 '조사장커피' 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량을 조금해보자면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금산 카페편에서 유일하게 커피가 맛있는 집으로 소개되었고, 2018년도에는 TV프로그램만 6개의 프로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나오곤 했어요.  
 조사장커피는 청년들의 문화와 예술들을 담고 싶은 카페예요.  
 작년 여름에는 여러 아티스트 분들을 초청해 금산에 없는 인디가수 분들의 음악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여유와설빈, 최고은, 도마, 광 푸른하늘, 김목인 아티스트님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공연자분들 또한 시골에서 청년이 좋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공연 제의에 흔쾌히 와 주셔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들을 했었기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제 가게도 누군가에게는 꿈교 같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운영할 거예요.  
 특히 목공은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저도 목공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게 소중한 인연이 되준 꿈교에 고마움을 표하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조사장커피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길 98. / 0507-1319-1641



평화를 품은집을 새롭게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11월 : 김나경, 정영하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은 작년 9월에 파주를 휩쓴 돼지열병으로 평품집을 찾는 발걸음이 뚝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의 후원으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야카가 들려주는 한-일 평화이야기

사야카는 사게가 맛있는 일본 니카타탄 출신이며 한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일본문화/다문화 강사입니다. 그림책과 뮤지컬을 사랑하고 다문화 책놀이활동을 통해 다양한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책 활동가입니다.

한, 일 8월의 평화이야기 - 8월 29일

사야카가 진행하는 북큐레이션 8월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8월 평화이야기로 진행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광복 75주년 그리고 일본의 패전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문학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큐레이션 뿐 아니라 작은 이야기 모임도 가졌습니다. 한국 문학작품과 일본의 문학작품속에 8월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구체적 문장들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그마한 목소리」(가칭)

글 : 아서 비너드  
 그림 : 마루키 토시, 마루키 이리 "원폭의 그림으로부터"  
 글 작가 아서 비너드는 어느날 만난 '마루키 토시, 마루키 이리'의 큰 그림 안에서 만난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의 작은 것들, 의미 있는 그림들을 찾아 그림책을 재구성합니다. 고양이도 말합니다, 가족, 생명을 계속 만들어가는 몸속의 작은 목소리에 대해,, 히로시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작은 생명들을 키워가며,,  
 국내에서는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카미시바이 옹으로 만들어진 이 책을 한 장 한 장 사야카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읽어가며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평화를 위한 작은전시회에 위 내용들을 전시했습니다.

한국의 문학작품은 책을 읽으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국화』 『1945년 철원』 『마사코의 질문』 『어머니』 『맨발의 겐』 『백년아이』 책을 읽고 와서 작품 속 글을 낭송하고 각자가 읽은 책 내용을 발표 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작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야기 끈으로는 『국화』를 읽고 어린 '국화'에게 광복은 어떤 의미였을 끼를 고민했던 홍유리님. 『맨발의 겐』 10권을 읽은 박희옥님이 일본속의 8월 15일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읽은 솔라라 김수민님은 재일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1세대들의 쓰린 역사를 보여주는 자전적 소설이라며 '먼 앞날과 바로 코앞을 함께 살피야 한다. 그 두 가지를 잘하면 범에 날개를 단거나 매한가지다.' 라고 이야기해준 어머니 말이 제일 생각이 난답니다.

『마사코의 질문』을 읽은 양은영님은 야마코토 선생님의 8.15와 아빠의 8.15가 조금도 같지 않았답니다. 198쪽을 보라는 힌트도 주셨답니다. 『1945년 철원』을 읽어주시는 최향숙님은 책속 천왕의 연설문을 대독해 주셨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는 참가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8월 북큐레이션



8월 이야기행사



10월 북큐레이션



11월 북큐레이션



## 평품소극장 영화 소개

8월 추천 영화 **사마에게** 와드 알-카팁, 애드워드 왓츠 감독, 15세 관람가, 96분



### '난민이 되기를 거부한 시리아 알레포 사람들 이야기'

자유를 꿈꿨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나의 도시 알레포  
사마, 이 곳에서 내가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세상에 눈뜨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어  
사마, 왜 엄마와 아빠가 여기 남았는지,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사마, 이 영화를 내게 바친다

언젠가부터 시리아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난민'입니다.  
정부군과 IS세력, 반군, 러시아군 등의 폭격 속에 과연 시리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영화 《사마에게》는 바로 그 궁금증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사마에게》는 시리아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알레포 대학, 그리고 난민 되기를 거부한 알레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월 추천 영화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마이크 뉴웰 감독, 15세 이상 관람가, 123분



### '고난의 시기지만 작은 즐거움과 희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북클럽 이야기.'

전쟁 중에 결성된 외딴섬의 북클럽. 런던의 작가가 그들을 찾아 떠난다. 유쾌하고 용감하게 나치의 점령을 견딘 사람들. 그들을 통해, 그녀의 삶은 더욱 반짝거리고 건지섬의 사람들은 나치 점령 시기지만 그녀를 만나며 즐거움과 희망을 갖게 되는데...(넷플릭스)

1941년, 프랑스 북쪽 해안 지역에 더 가까운 채널 제도 영국 왕실령인 '건지섬' 섬 주민 다섯 명이 통금시간에 술에 흥겨워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다 나치 독일군과 마주한다. "무슨 모임이지?" "독서요" "모임 이름은?" "건지..."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이요!"...  
이후 나치 독일군의 감시 하에 진짜 북클럽을 만든다.  
1946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런던.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기를 얻게 된 작가 줄리엣 그녀 앞에 편지 한통이 도착한다. 줄리엣은 건지 북클럽에 대한 편지 내용을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며 건지 섬으로 가는데...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따뜻한 우정이 깃든 감동적인 영화?

## 카페 소라브레드 소식



소라브레드는 매주 수요일~일요일까지 오픈합니다. 빵은 주말에만 구워요. 혹 평일날 드시고 싶다면 10개 이상 주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두포리의 썩을 빵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해 지역의 썩을 뜯어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가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썩가루를 만들어주시는 양은영회원님 고맙습니다.  
※ 야외카페이고 안심거리두기가 가능한 카페입니다.



## 평품소극장 영화 소개

11월 추천 영화 **내 눈 앞에서-디아르바키르의 아이들** 미라즈 베자르 감독, 15세 이상 관람가, 109분



### '쿠르디스탄 분리 독립 운동을 한 혐의로 터키의 비밀경찰에게 부모를 잃은 디아르바키르 지역의 쿠르드족 아이들 이야기.'

터키의 동부 쿠르드족 주거지역인 디아르바키르를 배경으로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테러로 대응하는 터키 정부의 정치적, 민족적 갈등의 비극을 아이들 시선에서 그린 영화.

굴리스탄은 가족과 함께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던 중 부모가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사고를 당한다. 갓난아 이 막내와 남동생과 홀로 남겨진 굴리스탄은 쿠르디스탄 분리 독립 운동하는 이모 야크분의 보살핌을 받지만, 그녀는 그들을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 받으러 나갔다 체포 당한다. 결국 다시 고아가 된 세 아이의 운명은...

### 폭력과 가난 속에 버려진 아이의 시선 속에 투사된 현실

※ 국제 젊은이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 누렘베르크 영화제 관객상, 특별상 / 산 세바스찬 영화제 감독상 수상 / 바르샤바 영화제 1-2위 경쟁부문 진출 / 이스탄불 국제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여우 주연상, 음악상 / 함부르크 영화제 젊은 감독상 수상 / 겐트 국제 영화제 특별상 수상

## 평화를 품은 책방

### 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코로나 시대, 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을 통해, 8월부터는 평화를품은집에서 깊이 있는 평화 관련 다양한 작가 강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꾸준하게 모여서, 작가 강연 시간이 뜨거운 열공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21일 최은영 작가와 함께 하는

'우토로의 희망 노래' 우토로 이제는 안녕한가요?

8월 28일 박진숙 작가와 함께 하는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만'

9월 18일 & 9월 25일 장경선 작가와 함께 하는

'두둑의 노래'로 이야기하는 제노사이드

'사라예보의 장미를 아시나요'-보스니아의 인종청소

10월 15일 & 22일 최유정 작가와 함께 하는

1980년 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직도 아름답다'

난징대학살로 돌아보는 중국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 이야기 '난징의 호루라기'

11월 11일 & 13일 권윤덕 작가와 함께 하는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될 역사의 아픈 진실 '꽃할머니' 이야기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평화와 인권의 길을 찾는 제주 4.30이야기 '나무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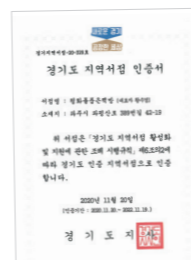
2020년 책방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림책과 동화책을 통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평화를품은책방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처음으로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1년 이상이 되어서, 지난 10월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 11월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평화를품은책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란?**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하면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평화를 품은 집**은 임진강과 DMZ(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화·인권·환경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있는 ‘**평화도서관**’  
세계의 제노사이드 사건을 다루는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종이 인형으로 전시한 ‘**다락갤러리**’  
다양한 주제에 맞춰 영화를 상영하는 ‘**평품소극장**’  
평화 관련 도서를 주제별로 엄선하여 판매하는 ‘**평화를 품은 책방**’  
새로 만드는 천연발효빵과 맛있는 커피로  
무거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카페 소라브레드**’가 있습니다.



평화도서관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다락갤러리



평화를 품은 책방



소라브레드

###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주제별 평화 도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동아리, 학교 연계, 가족 단위 등)
- 제노사이드와 일본군 ‘위안부’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쟁 관련 인근 지역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평화프로그램

평화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활동 상황, 관심사, 연령, 인지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담 후 진행합니다.

###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친구가 되어 주세요.

평화를 품은 집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부, 재능후원과 자원활동으로 운영됩니다.

#### 친구 회원

CMS를 통해 월 2천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 기부

관련 도서 및 자료, 시설물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세요.

#### 재능후원과 자원활동

도서 정리, 번역, 홈페이지 관리, 자료 제작 등 능력을 빌려 주세요.

#### 후원계좌

국민은행 657401-04-002317 평화도서관

### 시설 이용방법

문 여는 시간 : 4월~9월 오전 10시~오후 6시

10월~3월 오전 10시~오후 5시

휴관 :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 연휴, 매년 1월 (카페는 매주 월, 화 쉽니다)

입장료 : 제노사이드역사자료관과 다락갤러리 3,000원, 평화도서관은 무료